

12/7(화) 욥기 묵상 26

욥기 17:1-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 16장에 이어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계속되는 욥의 변론의 말씀입니다. 욥은 욥기 17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변론을 시작하고(1-5절)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향한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6-16절).

하나님께 대한 변론

욥은 자신이 이제 기운이 쇠하여졌으며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러한 고백은 욥기서 전체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실제로 이러한 고백과는 달리 그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약 140년이나 더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욥 42:16-17, **“그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므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종종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아닌 친구들의 조롱과 충동질 때문이었습니다(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간혹히 부탁드립니다(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3절의 ‘담보물’은 원어 적으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있어 그의 손을 잡아 줄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욥은 오직 하나님 만이 자신의 보증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욥기 16장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도 허락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만이 그가 가진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편, 욥은 친구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가리어 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같은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욥과 같이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오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판결을 맡겨 두었습니다(삼상 26:9-10,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판결자이자 변호자가 되시며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다 아리며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탄식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로 인해 욥의 눈은 근심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욥의 몸과 마음은 그림자와 같이 그늘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6-7절). 여기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욥이 친구들에 의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깁니다(욥 15:17-18,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욥은 그들이 만약 지혜자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처신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게 됩니다(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욥을 비난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이제는 버리길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마 10:29-31,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그에게 허락된 사울의 행위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심지어 그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감당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시기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 중에서 이 때 다윗은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욥과 같은 시기를 다윗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영원하지 않게 하셨고 그 기간 중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던 욥이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두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브라질 원주민들을 위한 기도:** 가톨릭교회의 원주민 선교사 협의회(CIMI)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 후손에 대한 폭력으로 2020년에 182명의 원주민이 살해됐으며 이는 2019년의 113명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원주민 영토에 대한 침공은 263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원주민의 권리와 영토, 생명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불법적인 브라질 정부의 정책들이 개선되며 폭력과 침탈의 위협 속에 있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페루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